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12. 27.(화)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우 (044-203-4210)
		담당자	서기관 한종호 (044-203-4211)
			사무관 김효선 (044-203-4212)
			사무관 박광일 (044-203-4215)
			사무관 박성수 (044-203-4214)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23년 수출 6,800억불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투 300억불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 견인

- '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 비전 제시 -

- ☞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수출카라반'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 ☞ 바이오경제2.0, 에너지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 원전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

①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 역대 최대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청년 무역인 매년 1,500명 양성
- 체코, 필리핀, 영국 등 원전시장 개척, 방산·플랜트 수주 총력 지원

②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 10대 업종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으로 투자 플러스 달성
- 상생인센티브, 인허가 타임아웃, 공타면제 등 신속행정 3종세트 도입
- 11대 초격차 R&D, 탄소저감 등 산업 R&D 5.6조원 투자
-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③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일감 3.5조원 공급,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
- 혁신형 SMR 개발 본격 개시, '28년까지 총 4,000억원 투입
- 전력 실시간 거래, 가격입찰 방식 도입 등 전력시장 혁신제도 시범 도입

④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 美 IRA, EU CBAM 등에 선제적·전방위 대응 및 Fab4 전략적 고려
- 중남미·중동 FTA 체결 및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선진형 ODA 추진

【 업무보고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7(화)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 산업부는 2022년 한해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하고, 13년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러-우전쟁, 3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처리 등 민간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러나,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 ❶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❷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❸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❹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업무보고 주요 내용 】

1.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 내년도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나,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애로를 집중 해소한다.
 -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금리우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확대(120개→150개)할 계획이다.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2/3(약 9천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②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한다.

-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청년 수출팀’을 조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소를 신설하여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③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아세안 시장)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 (중동 시장) 脫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 원전수출,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 (중남미 시장) 신규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 칠레-아르헨티나(리튬), 브라질(니켈), 멕시코(무수불산 등)

- (아프리카 시장)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하여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를 통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을 확대한다.

-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④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 방위산업의 경우 '23년 170억불 이상(금년수주)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 해외 플랜트는 '23년 3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하여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 또한, '수출 카라반'을 신설하여 지방기업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2.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투자도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①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하여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 우선,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상생인센티브 : 기업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자체간 공유

인허가 타임아웃 : 일정기간 도래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공공기관 예타면제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예타면제 특례 적용

-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최대 3~4% → 10%)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 산업기술 R&D에 5.6조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하여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의 기술이전을 허용하여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스타연구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 CVC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결합하는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R&D 투자 확대 및 사업화를 위해 CVC의 적극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00억원 CVC펀드 조성, CVC 투자연계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 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털

○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불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부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 첨단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반도체)**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1,000억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반도체 아카데미·특성화대학(원)·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개시하여 전문인력 8,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 **(이차전지)**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해외 투자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내는 R&D센터 및 첨단생산의 Mother Factory로, 해외는 양산기지로서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신속 전환을 통해 **新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 **(자동차)** '30년까지 車-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 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철강)**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조선)** 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 수주 방지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23.上)
 - **(탄소복합재)**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 소형발사체, 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의 '30년까지 2.1조원 규모 투자계획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30년까지 200대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내 생산 비율 50% 이상,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를 목표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립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150→200개)하고, 바이오,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다변화)** 소부장 특별법을 소부장·공급망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 민간비축 확대 등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여 적극적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 기업이 부족한 인력과 기술을 지방 대학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과 계약 랩(Lab), 공동연구 프로그램('23년 3개 컨소시엄)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연계형 지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4~’32년, 9,988억원 예타중, 과기·복지부 등 공동)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23 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3천억원, 예타추진, 과기부 공동) 구축 등을 통해 R&D와 테스트베드 지원을 추진한다.
 -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천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수소)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3.상),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 규모)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 (해상풍력)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CCUS)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23.상)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23.상)할 계획이다.
 - (고효율기자재)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 (스토리지) 非리튬, 장주기 ESS 등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 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투자활력 저하, 인구 절벽, 생산성 정체에 따라 제로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 * 韓 1인당 잠재성장률(% , OECD) : (’00~’07)3.8 → (’07~’20)2.8 → (’20~’30)1.9 → (’30~) 0.8
 -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을 운영중이며,
 - 투자주도 성장, 산업인재 공급, 생산성 혁신,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민간 제언을 도출해 내년 5월 산업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3.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구조혁신

□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부는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①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다.

○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22년 대비 1.1조원이 증가한 3.5조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원전 준공 계획 : ('23년) 신한울 #2, ('24년) 새울 #3, ('25년) 새울 #4

○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3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고리 #2·3·4 운영변경허가 신청, 한빛 #1·2 및 한울 #1·2 안전성평가 신청('23.下)

○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하여,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천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 혁신형 SMR 1차년도 연구 개시('23~'28년, 총 3,992억원)

②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

○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여,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23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23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③ 에너지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기위원회를 개편하여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4.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을 강화한다.

-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對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② 新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추진한다.
- GCC(걸프협력회의)·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③ IPEF·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협상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계획이다.
-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④ 국격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 정부·민간 모든 주체가 ‘Korea One Team’으로 부산엑스포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붙임 : 인포그래픽(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



1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습니다.

전부처 수출 역군화

수출 6,800억불 이상

수출전략회의



수출카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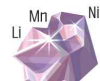
新수출 3총사



산업 ODA 고도화

신흥 개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공급망ODA



기술ODA



그린ODA



2 투자 확대와 역동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투자주도 성장

설비 투자 | 100조원 밀착지원

산업 R&D | 5.6조원 투입

외국인 투자 | 300억불 이상 유치



첨단산업 → 초격차 달성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 디지털·그린 전환

자동차



조선



탄소복합재



3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바이오경제 2.0

바이오 데이터



바이오 소재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제조



에너지 르네상스

스톤 리지



수소



해상 풍력



고효율 기자재



CCUS



산업대전환

투자

투자특국

인재

Brain Melting Pot

생산성

국가생산성 1%p ↑

생태계

기업가정신

4 원전생태계 복원의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원전

매년 1기 원전 준공
일감 3.5조원 공급



에너지 자급률 ↑

원전 + 신재생
발전비중

'21년
35%

'30년
54%



고효율·저소비구조 정착

고효율가전



에너지캐쉬백



에너지절약시설



2026년 수출 5위 + 제조 3위 + 경제영토 1위 달성!